

#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3호 2019년 7월 4일

항만·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Tel.+82-51-797-4665 Fax.+82-51-797-4659 △총괄:박성준 러시아연구센터장 △감수:길광수 명예연구위원 △편집:김영지 연구원

## 주요내용

### 통계로 보는 북방(p.2)

- 금년 1~5월 우크라이나 총 동량 9% 증가...항만물동량은 증가, 철도물동량은 감소

### 주요 동향(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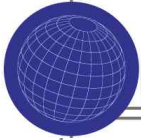
- 동부(p.4)
  - 러·일 공동투자 온실단지 착공
- 중부(p.6)
  - 몽골 '알탄불락(Altanbulag)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건설 계획' 토론회 개최
  - 아제르바이잔, 트랜스카스피안 물류회랑 관련 박람회 개최...유라시아 물류허브 이미지 제고 노력 중
- 서부(p.10)
  - 러·중, 북극 해운 합작기업 설립 합의
  - 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미 해군 함정 오데사항 입항 이어 원유 구매도 합의

### 주요통계(p.17)

- 러시아 자동차 기업 TOP 10(2019년 5월 기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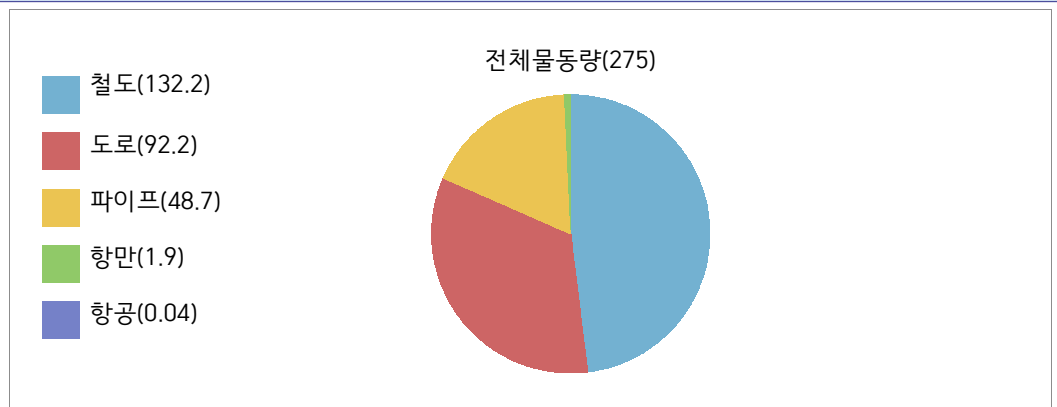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북방

## ■ 금년 1~5월 우크라이나 총 동량 9% 증가...항만물동량은 증가, 철도물동량은 감소

- 우크라이나 통계청(State Statistics Service of Ukraine)은 금년 1~5월 총 물동량이 작년 동기 대비 9%(2억 7,500만 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총 물동량 ton.km로는 최대 3.75% 늘어난 1,400억 9,000만 ton.km를 기록했다
- 운송수단 중 차량수송 물동량 증가율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약 9,220만 톤), ton.km가 14.5% 상승해 191억 5,500만 ton.km에 달했음
- 뒤이어 항만운송 물동량은 24.1%가 증가한 190만 톤을 기록했으며, 이중 51.1%는 해외운송 비중이 높았음. 그러나 ton.km는 1.5%로 소폭 감소한 12억 2,000만ton.km를 기록했음
-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공운송 또한 6.2%가 상승한 4만 톤을 기록했다. ton.km는 4.4%가 늘어난 1억 2,260만ton.km를 기록했음
- 한편 파이프를 통한 석유가스 운송 또한 전반적으로 3.7%가 상승한 4,870만 톤을 기록했음. 하지만 원유 가압(pumping) 및 경유(transit) 비중은 각각 5.7%와 7.7%가 감소했으나, 천연가스 가압 및 경유 비중은 2.3%, 7.9% 증가했음

## 금년 1 ~ 5월 운송수단별 물동량 현황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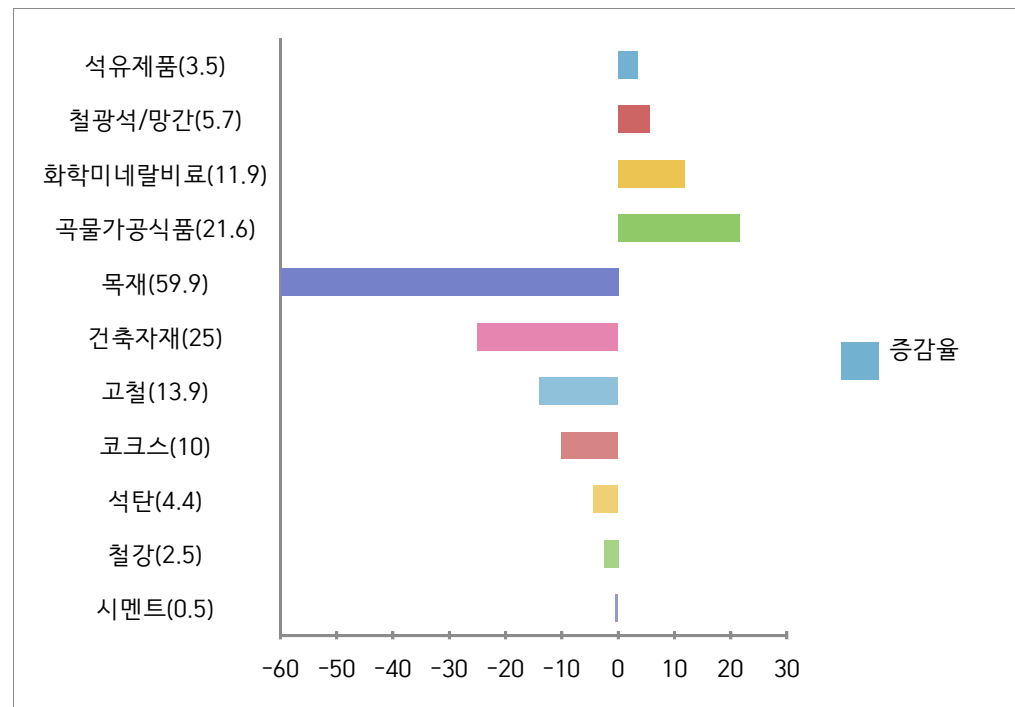
자료: ports.com.ua 2019



- 전통적으로 국가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철도물동량의 경우 전년도 동기보다 0.8% 소폭 하락한 1억 3,220만 톤을 기록했으나, 품목별로는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관측되었음
  - 이 중에서 국내물동량과 대외 수출물동량은 작년과 비슷한 1억 930만 톤을 기록했음
  - 한편 ton.km 또한 0.2% 감소한 778억 3,000만 ton.km를 기록했음

## 금년 1~5월 철도물동량 품목별 증감률

(단위 : %)



자료: ports.com.ua 2019

■ 참고자료 : <https://ports.com.ua/uk/news/v-yanvare-mae-obem-gruzoperevozok-vyr-os-na-9>(검색일: 2019년 6월 21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동부권역 주요 동향

### ■ 러·일 공동투자 온실단지 착공

-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교 내에 딸기재배를 위한 온실단지 착공식이 거행됨
  - 이번 프로젝트는 극동연방대학교, 도쿄농업대학교, '이노베이션'사, 'Hitach'그룹이 참여했으며 극동 투자 및 수출지원 공사의 협력하여 이루어짐
  - 이번 착공식에는 러·일 대학교 총장과 'Hitach'그룹 대표, 양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함

#### 러·일 온실단지 착공식



자료: <https://minvr.ru/press-center/news/22600/>(검색일: 2019년 6월 29일)

- 니키타 아니시모프 극동연방대학교 총장은 본 프로젝트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과학과 일본기술이 결합해 연해주에 약 3,000㎡의 온실단지가 곧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함



- 카추미 타카노 도쿄농업대학교 총장은 연해주 온실복합단지는 본 대학교가 러시아와 진행한 첫 번째 협력사례로 온실재배를 통해 극동기후에서 과일 및 채소 등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함
  - 또한 나카무라 코이치로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총영사는 극동연방대학교와 도쿄농업대학교가 러·일 양국 간의 협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함
- 온실건설에 사용된 기술을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독특한 기술로, 가볍지만 내구성이 강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으며 러시아의 혹한 기온에서도 식물재배 및 보호가 가능함
- 또한 강풍과 강설에도 딸기재배가 가능하며 온실 내에서 작물성장에 필요한 기온이 유지됨
  - 향후 딸기 외에도 모종, 양배추, 토마토 등의 다양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양묘장을 건설할 것이며 완제품을 위한 저장소를 건설할 계획임
  - 재배된 작물들은 극동연방관구에서 유통·판매될 예정이며 일본에도 수출할 계획임
  - 본 프로젝트 2단계에서는 양묘장과 저장소 등이 포함된 약 2,500㎡ 온실단지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임

■ 참고자료 : <https://minvr.ru/press-center/news/22600/>(검색일: 2019년 6월 29일)

김은미 현지 리포터(국립극동교통대학교)

051-797-4776, usea1004@gmail.com



## 중부권역 주요 동향

## ■ 몽골 ‘알탄볼락(Altanbulag)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건설 계획’ 토론회 개최

- 지난 6월 27일 ‘알탄볼락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건설’을 정부 및 민간 부문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음
  - 본 토론회는 몽골상공회의소, 몽골 건설도시부, 뉴 어바니즘(New Urbanism) 사(社)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몽골 건설도시부가 시행 중인 ‘알탄볼락 국경지역 개발 계획’의 일환임
- 알탄볼락 자유무역지역 개발과 관련된 논의는 20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됨
  - 알탄볼락 자유무역지역은 2014년 6월 22일 처음 건설되었으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쪽으로 335km에 위치해 있으며, 러시아의 부리야트 공화국과 접경하고 있음
  - 1995년 처음으로 ‘경제 자유무역지역 건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2년 ‘알탄볼락 무역자유지역 법률 환경에 대한 법’, 2015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법’을 비준하면서 자유무역지역 건설의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음
  - 현재 100여개의 기업이 투자하고 17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아마르투스인(O.Amartuvshin) 몽골 상공회의소장이 강조했다
- 알탄볼락 자유무역지역은 유라시아 경제를 연결하는 가장 큰 무역 활로로 기대되는 지역임
  - 본 자유무역지역은 러시아와의 접경지역에 있으며, 러시아, 몽골, 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알탄볼락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해, 러시아 및 유럽 시장에 좀 더 저렴한 세율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됨

### 몽골의 자유무역지역 위치



자료: <https://images.app.goo.gl/DisFTBDbKwWKED367>(검색일: 2019년 7월 3일)

- 본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해 토론자들은 인프라 및 다른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조함
  -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인프라 건설을 통한 생산 환경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함
  - 몽골과 중국 간 접경지역에 위치한 자밍우드(Zamiin-uud)를 통해 오가는 철도, 도로가 일직선이 아니고, 알탄볼락 지역에서 25km의 거리를 두고 갈라진다는 점이 수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로 대두됨
  - 또 본 자유무역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회랑 및 자밍우드 자유무역지역 연계·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함

■ 참고자료 : 몽골 건설도시부 공식 홈페이지 (검색일: 2019년 7월 2일)

신민선 연구원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 아제르바이잔, 트랜스카스피안 물류회랑 관련 박람회 개최...유라시아 물류허브 이미지 제고 노력 중

- 6월 11일 수도 바쿠에서 제18회 카스피안 국제 도로교통 물류 박람회 (Transcaspian/Translogistica 2019)와 제9회 카스피안 국제 도로·인프라 대중교통 박람회(Road&Traffic 2019)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 라민 굴루자데(Ramin Quluzadə) 아제르바이잔 교통통신첨단기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가 교통 분야의 발전에 중요성을 두고 지역 차원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교통체계를 조직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포함한 10개국 75개 기업들이 2개 박람회에 참여했음. 참가 기업들은 각자 주요 사업 분야인 토목설계 및 건설(도로·교량·터널), 교통안전 서비스, 차선 도색, 도로 조명설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전시했음
  -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철도공사, 바쿠 국제 상업해항,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조선소 등의 공기업과 정부기관인 아제르바이잔 도로교통청이 박람회에 참여했음
- 해당 박람회는 카스피해 연안지역 물류허브로서 아제르바이잔의 가치를 홍보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교통통신첨단기술부, 국가경제인연합회, 경제부 산하 수출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 발전청 등 아제르바이잔 기관 외에도 TRACECA 프로젝트 정부 간 상설사무국 또한 박람회를 후원하고 있음. 이는 TRACECA 참가국들이 아제르바이잔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한편 박람회 기간 중 학술 차원의 접근을 위한 트랜스카스피안 국제 운송 회랑 관련 학술회의 개최 또한 예정되어 있음





2019 트랜스카스피안 물류 박람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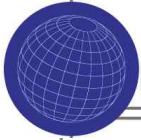


자료: DenizXeber.az 2019

참고자료 : <https://denizxeber.az/2019/06/11/bakida-transcaspian-translogistica-2019-v%C9%99-road-traffic-2019-s%C9%99rgil%C9%99ri-kecirilir/>(검색일: 2019년 6월 11일)

조용성 현지리포터(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서부권역 주요 동향

## ■ 러·중, 북극 해운 합작기업 설립 합의

- 6월 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러시아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북극 해운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음
  - 러시아의 노바텍(석유기업), 소프콤플로트(해운기업), 중국의 코스코(해운기업), 실크로드재단이 북극 해운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음
  - 합작기업은 노바텍이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야말 LNG, 북극 LNG 2 등에서 생산된 LNG를 운송하는 북극해 쇄빙탱커를 관리할 것임
- 합작기업은 단일운영플랫폼을 통해 북극해에서의 운송·물류 효율성과 안전도를 제고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소프콤플로트 관계자는 “북극해에서 연중 안전하게 LNG를 운송하기 위한 국제 사업이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이 지적·기술적·인적·재정적 자원을 모아야 했다”고 언급했음
- 이번 합의는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이 북극항로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공동으로 북극항로 개발 및 탐사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위의 4개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은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국제 상업 운송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발되는데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음
  - 이를 위해 북극지역에서 러시아-아시아 또는 유럽-아시아 간 연중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공동으로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https://splash247.com/russia-and-china-set-up-arctic-shipping-joint-venture/>(검색일: 2019년 6월 29일)
-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russia-and-china-sign-arctic-deal>(검색일: 2019년 6월 29일)
- <https://www.marinelog.com/news/russia-and-china-in-major-arctic-lng-shipping-venture/>(검색일: 2019년 6월 29일)

민지영 리포터(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misjee@hanmail.net](mailto:misjee@hanmail.net)



## ■ 경제·군사적으로 미국에 가까워지는 우크라이나...미 해군 함정 오데사항 입항 이어 원유 구매도 합의

- 6월 29일 미국과 우크라이나 합동으로 흑해에서 주관하는 국제 해상군사훈련인 Sea Breeze 2019의 일환으로 미해군 소속 고속수송함 USNS 유마(Yuma)함이 보스포러스 해협(Bosphorus Strait)을 통과해 오데사(Odessa)에 입항했음
  - 해당 함정은 인도주의 작전, 병력 및 장비 수송을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며 수심이 낮은 수역에서도 항행이 가능함. 선체 길이는 103m로, 이는 해병대 1개 대대 및 M1 에이브람스(Abrams) 탱크 수용이 가능한 규모임
  - 이는 미군 함정이 역사상 두 번째로 해협을 지나 흑해 수역 내로 입항한 사례이며, 2018년 8월 고속수송함 USNS 카슨시티(Carson City) 함이 최초로 해협을 통과해 루마니아에 입항한 바 있음
  - 한편 전날 수송함 호위 임무를 맡은 미사일구축함 USS 카니(USS-Carney) 함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했음

Sea Breeze 2019 합동훈련



자료: Yörük Işık 2019



- 이와 같은 합동훈련 분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석유가스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원유 및 가스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적인 증산 계획도 도모하고 있음
  - 정유사 Ukratnafta(사기업)는 미국으로부터 75,000톤의 베켄(Bakken)산 경질유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원유는 유조선 위즈덤 벤처(Wisdom Venture) 호로 오데사항에 하역된 다음, 파이프를 통해 본사가 위치한 크레멘추크(Kremenchuk)로 운반될 예정임
  - 이미 지난 5월에 나프트가즈(Naftogaz, 공기업)사는 미국과 가스공급 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며, 미국 측은 20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제안한 바 있음
  - 한편 나프트가즈의 자회사인 Ukrnafta(공기업)는 2019년 5월 석유가스 증산 계획을 발표했고,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13만 700톤의 석유 및 콘텐세이트를 채취할 수 있었음
  - 이는 6월 1일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로의 석유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임

■ 참고자료 :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4%d0%be-%d0%be%d0%b4%d0%b5%d1%81%d0%b8-%d0%b2%d0%bf%d0%b5%d1%80%d1%88%d0%b5-%d0%bf%d1%80%d0%b8%d0%b1%d1%83%d0%b4%d0%b5-%d0%b2%d0%b8%d1%81%d0%be%d0%ba%d0%be%d1%88%d0%b2%d0%b8%d0%b4%d0%ba%d1%96/2019/06/29/>(검색일: 2019년 7월 2일)

<https://ua.news/ua/ssha-upershe-vidpravlyat-naftu-do-ukrayiny/>(검색일: 2019년 7월 2일)

김엄지 연구원

051-797-4776, umjikim@kmi.re.kr





## 주요 통계

러시아 자동차 기업 TOP 10(2019년 5월 기준)

순위	기업명	국적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	시장점유율
1	Renault-Nissan-Mitsubishi	프랑스, 일본	48,426	-6.2%	35.2%
2	KIA-Hyundai	한국	34,491	-3.1%	25.1%
3	Volkswagen Group	독일	17,502	+2.7%	12.7%
4	Toyota Group	일본	9,644	-9.8%	7.0%
5	GAZ	러시아	4,309	-7.8%	3.1%
6	Mercedes-Benz	독일	3,458	-12.6%	2.5%
7	Ford	미국	3,400	-8.1%	2.5%
8	BMW Group	독일	3,320	+6.4%	2.4%
9	UAZ	러시아	2,471	-31.9%	1.8%
10	Mazda	일본	2,325	-8.3%	1.7%
합계			137,624	-6.7%	100%

참고자료 : <https://www.autostat.ru/infographics/39553>(검색일: 2019년 7월 2일)

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KMI 러시아연구센터)

7-914-345-3947, aquillar7@gmail.com